

The LEET BIBLE

2027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PRINCIPLE 하



PRINCIPLE 하

제목	The LEET BIBLE 2027 Principle (하)
발행일	2025년 9월 11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인쇄	(주)에이프린트
정가	99,000원
ISBN	979-11-992339-8-0 (13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교재구매 및 더 많은 학습정보는
리트바이블 공식 홈페이지에서!

leetbible.com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들어가며

The LEET BIBLE

Principle (하) 2027 개정판 서문

The LEET BIBLE이 세 번째 개정판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초판과 개정판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피드백이 이번 제3판을 완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개선 제안을 주신 부분들이 설명 방식을 명확하게 다듬고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언어이해 영역의 난이도 상승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었습니다. 2026 LEET 언어이해의 평균 점수는 17문제 선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중간 점수대에 대부분의 수험생이 몰려있는 구조로 체감 난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10개 제시문을 모두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9개 제시문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원리를 더욱 명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언어이해의 본질적 원리는 난이도가 상승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사고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고난이도 지문과 낯선 소재 속에서도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일관된 기초를 충실히 반영했으며, 최신 기출문제를 수록·분석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핵심 흐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LEET가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Principle (하)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앞서 Principle (상) 교재에서도 다뤘듯이, LEET는 과목을 불문하고 **'형식적 사고'라는 공통된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 기술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법조인의 핵심 역량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학자의 영역입니다. 법조인은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핵심을 추출해 법문에 포섭하는 능력, 즉 사건과 법체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개별적 배경지식은 부차적이며, 어떤 분야에서든 기본적인 법무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 법조인의 사고방식을 체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는 마치 고등학생이 성인이 된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The LEET BIBLE의 Principle 시리즈는 (상), (하)라는 두 권의 커리큘럼에 걸쳐 LEET가 요구하는 사고의 본질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LEET를 지도해 왔던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많은 수험생을 만나면서 발견한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특정 유사한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실질적인 성적 향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Principle (하) 교재는 이 포인트에 근거해 LEET 언어이해 제시문에 특화된 독해 방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언어이해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어이해적 사고를 기반으로 추리논증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LEET는 시험입니다. 시험장에서의 유일한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맞히는 것입니다. 제시문과 문제를 100% 이해하거나, 모든 내용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LEET 준비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LEET의 높은 제시문 난이도와 제한된 시간은 법조인의 역할이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교재는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떤 사고를 해야 하고, 어떤 사고를 피해야 하며, 실제로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피상적이고 사후적인 이론적 접근방식이 아닌, 철저히 실전적 관점에서 탐구합니다. 모든 내용은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접근방식은 제시문의 완전한 이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사고 과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데 중점을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전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 고득점을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LEET는 명확한 목적성을 요구하는 시험인 만큼, 효율성과 전략적인 사고가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험생은 시험장에 혼자 갑니다. 최종적으로 홀로 자신의 미래를 걸고 답을 도출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실전 상황에서 필요한 사고방식과 접근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습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해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 환경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장마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과 실전 적용 전략을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단계별 학습 가이드와 함께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혼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맺음말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LEET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EET 성적은 신이 내린다는 자조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수험생의 도전 의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통념입니다. The LEET BIBLE은 이러한 막연한 속설을 넘어, 수험생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본서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충실히 따르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점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 LEET의 준비란 여러분들께 익숙한 개념과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해서 푸는 시험들과는 달리 **철저히 '훈련'을 통한 '체화'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최소 3회독 이상은 권장드립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값진 도전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향한 여정에 본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The LEET BIBLE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에서 LEET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실전 중심적'**입니다. 각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제시되는 주요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제 LEET의 기출문제를 마치 옆에서 과외선생님이 풀어주는 느낌으로 함께 학습해보는 과정을 통해** 풀어가며 자연스럽게 원리가 습득되고 체화될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문의 사이사이와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앞서 LEET를 거쳐 간 선배 수험생 분들의 현장감 담긴 이야기도 가득 담아,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실 법한 포인트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하 각 섹션별 활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LEET Tips



LEET TIPS

가장 효과적인 LEET 실전 학습법

The LEET BIBLE을 통해 어떻게 LEET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섹션으로, **본문 중간중간에서 각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시해 드리는 파트**입니다. 암기 일변도의 개념 정리에 머물지 않고 LEET 시험을 구성하는 각 문제 유형별 실전 대응법 또는 문제풀이 방법론을 제시하는 의견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나 특정 유형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재를 빠르게 넘기시면서 Tips 부분만 잘 살펴보셔도 문제 대응을 위한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2 문제 LINK

문제 LINK

Principle (하) 교재에서 단독으로 추가된 파트로, 교재 내 각 문제와 유사한 기출문제를 함께 연습하면서, **배운 개념을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든 파트**입니다.

Principle (하) 교재에서는 **LEET식 독해 방법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The LEET BIBLE이 제시하는 실전적 방법론의 두 가지 핵심 축 중 하나는 **LEET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시문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본 교재에서 설명할 LEET 언어이해 제시문 유형분류는 **과거 수년간 반복적으로 나타난 제시문 패턴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물**입니다.

이 작업은 LEET 언어이해 과목의 문제 수와 시간제한에 비해서 처리해야 하는 텍스트의 양이 너무 많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일상적인 ‘글 읽기’ 방식으로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 나아가 LEET에서 요구하는 정답 도출 방식은 언어이해 과목에서도 Principle (상)에서 배웠던 ‘형식적 사고’와 그 근간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기초합니다. 즉, **각 제시문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논의 전개 방식’의 틀**을 배운 뒤, 어떤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그 틀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독해**를 하여 **정보습득과 처리과정 상의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하는 ‘제시문의 유형’과 각 유형에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의 능동적 패턴화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문제 LINK”에서 한 번 다뤄본 문제와 높은 유사성을 가진 문제를 제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유사한 유형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체화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Review Note

Review Note

✓ 풀이볼 문제

2015년도 추리논증 22번

The LEET BIBLE은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실전에서 정답을 가려내는 접근법에 집중합니다. **Review Note**는 수험생 스스로 문제 접근 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본 교재의 대부분 문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Review Note** 양식은 리트바이블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 Review Note들은 실제 LEET를 준비한 선배 수험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완성된 전문가의 해설이 아닌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고민했던 생생한 기록이기에, 수험생들의 공통된 어려움과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차별화 전략까지 담겨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직접 Review Note를 작성하며 교재 예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Principle 단계에서는 정답 여부보다 사고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실전적 LEET 풀이법을 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최신기출 적용하기

2027학년도 개정판부터 새로 추가된 콘텐츠로, **각 장에서 배운 내용을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문제와 답 선지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앞서 학습한 방법론을 바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각 장의 핵심 개념과 접근법이 2026학년도 LEET 실제 문제에서 정말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배운 내용이 최신 기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체험하면서, 자신이 학습한 방법론이 실전에서도 유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섹션을 통해 과거 기출로 훈련한 원리가 최신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확신을 갖고, 동시에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각 문제의 전체 풀이는 **Final Round 교재에서 상세하게 열람 가능**

Debate Session

다년간 LEET 수험생들을 만나면서, 많은 질문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된 질문을 해결했을 때 수험생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LEET 문제를 풀면서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 Debate Session에서는 지난 수년간 LEET을 준비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선별하여 담았습니다. Q&A 세션과 Comment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강의를 듣는 듯한 생생한 말투를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문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각 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LEET 고득점을 위한 핵심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CONTENTS

시작하며 2026 LEET 출제양상 분석	12
--------------------------------	----

CHAPTER

01

LEET 독해의 기본 대응방향 14

1. Principle (하)의 집필 의도	16
2. Principle (상) 복습	23
3. LEET 독해 정복 핵심 전략 #1 첫독해와 재독해	27
4. 정보습득과정과 정보처리과정의 연계	32
5. 크게 읽기와 작게 읽기	37
6. LEET 독해 정복 핵심 전략 #2 언어이해 제시문 빈출패턴 분석	39
Debate Session	49
마무리 쉬는 코너 The LEET BIBLE 선배 수험생님의 이야기	54

CHAPTER

02

이항관계 기본형 56

1. 이항관계 기본형 개요	58
2. 이항관계 기본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61
Debate Session	166

CHAPTER

03

과학잡지형 176

1. 과학잡지형 개요	178
2. 과학잡지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181
Debate Session	314
마무리 쉬는 코너 수험 공부방법론 수험생 NOTE	320

CHAPTER

04

이항관계 심화형 326

- 1. 이항관계 심화형 개요 328
- 2. 이항관계 심화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332
- Debate Session 458

CHAPTER

05

고전/문학형 464

- 1. 고전/문학형 개요 466
- 2. 고전/문학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469
- Debate Session 578

CHAPTER

06

과학원리형 585

- 1. 과학원리형 개요 587
- 2. 과학원리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590
- Debate Session 684

마치며 | LEET 고득점을 위한 여러분의 다음 숙제 690

정답지 692

시작하며

2026 LEET 출제양상 분석

2026학년도 LEET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흔히 "사설화"라고 불릴 만큼 체감 난이도가 크게 상승한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추리논증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단순히 문제의 양상이 복잡해졌다는 수준을 넘어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의 층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두터워졌기 때문**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정형화된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한 문제 한 문제의 기준선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상승한 구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특히 강조된 점은 **선지 판단의 층위(차원) 구분**이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조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조건·전제·예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갈랐습니다. 강화·약화·가설검증 등 친숙한 유형조차도 실제로는 실행형 검증, 즉 선지를 실제 논증에 대입해 보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오답을 소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The LEET BIBLE Principle(하)는 언어이해를 중심으로 다루는 만큼 언어이해 과목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 보자면, 2026학년도 언어이해 영역은 **최근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며 실전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지문의 난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정보습득 단계와 정보처리 단계 각각에서 요구되는 사고의 정교함이 한층 더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철학 제시문에서 보였던 개념 간의 복잡한 관계 설정이나 과학 원리형 제시문에서의 다층적 설명 구조는 수험생이 지문을 처음 접했을 때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의 맥락을 따라가는 데 큰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첫독해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컸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완전히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지문 자체를 버겁게 느끼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불안감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답 선지를 고르는 논리는 의외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답은 차원의 구획과 같은 형식적 사고에 충실하였으며,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구분, 논리적 층위의 구획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는 The LEET BIBLE Principle (상)에서 다룬 '형식적 사고'가 언어이해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반면 오답 선지들은 개념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거나 관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수험생이 **선뜻 확신을 갖기 어렵게 구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지문 내 정보들 간의 위계 관계를 왜곡하거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전도시키는 방식의 오답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선지를 검토할 수 있었던 수험생이라면, **처음 지문이 어렵게 느껴졌더라도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명확성을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언어이해 시험의 또 다른 특징은 **제시문 간의 난이도 편차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시험장에서는 10개 제시문 모두를 동일한 깊이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9개 제시문 정도를 목표로 삼되 각 제시문별로 투입할 시간과 노력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접근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못 푸는 문제를 버린다'는 소극적 전략이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낸다'는 적극적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정보습득 차원에서 보면, 이번 시험은 **제시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단락 간의 관계,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 개념 간의 위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답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정보처리 차원에서는 파악한 구조를 바탕으로 선지를 실행형으로 검증하는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즉, 선지의 내용을 지문의 구조에 실제로 대입해 보고, 논리적 정합성을 확인하는 절차적 사고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국 2026학년도 언어이해는 **단순한 키워드 대응이나 기계적 암기로는 접근이 불가능했고, 제시문의 구조를 파악하고 개념 간 관계를 차원별로 구획해내는 형식적 사고 훈련을 충실히 거쳐야만** 정답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The LEET BIBLE이 꾸준히 강조해온 **"형식적 독해와 차원 구획 중심의 대응적 사고"와 정확히 맞아떨어진 시험**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실전에서 이를 인생을 걸고 능숙하게 풀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출제의 방향과 핵심은 여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 틀 속에서 올해도 같은 양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형식적 사고와 차원 구획을 바탕으로 한 훈련을 충실히 수행한 수험생에게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구성이었으며, 이는 The LEET BIBLE Principle(하) 권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언어이해 영역의 실전 접근법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CHAPTER

01

LEET 독해의 기본 대응방향



The
LEET
BIBLE™

“

Principle (상)이
추리논증의 방식으로
언어이해까지 다뤘다면,
Principle (하)는
언어이해로 추리논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보습득방식의 변화가
정보처리방식의 변화를 이끍니다.

제 1 장

Principle (하) 사용설명서

The LEET BIBLE

1 Principle (하)의 집필 의도

The LEET BIBLE의 기본 사고방식과 학습 방향

먼저, 지금 이 교재를 보고 있는 수험생께서는 높은 확률로 The LEET BIBLE Principle (상) 교재를 마치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Principle (상)을 건너뛰고 Principle (하) 교재를 먼저 시작하시는 수험생이 계신다면, **저는 꼭 Principle (상) 교재를 먼저 읽으신 뒤 본 교재를 열람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본 교재가 LEET식 독해를 다루고 있다는 소개를 보시고 본인이 LEET 독해가 유독 약하다고 해서 바로 본 교재를 보실 수도 있는데, **결국 Principle (하)에서 다루는 독해방법 또한 Principle (상)에서 소개 드린 “LEET식 사고의 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본질적으로 다른 과목이 아닙니다. 어느 한 영역의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급하게 서두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교재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Principle (상)을 학습하셨다는 전제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Principle (상) 교재는 최소 3회독 이상 보셔야 자신의 것으

로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학습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1회독만 하고 넘어오셔도 LEET 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또 The LEET BIBLE에서는 어떻게 LEET를 접근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제가 추측해 보자면, 결국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된다”라고 느끼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The LEET BIBLE이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입니다. Principle (상)에서 계속 강조했던 “LEET식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작업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작업이 아니고,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EET에서 고득점을 얻는 방법은 절대 복잡하거나 방대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수험생께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The LEET BIBLE에서 이야기하는 “**LEET식 사고의 틀**”의 핵심은 “**형식적 사고**”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수능이나 여타 유사한 시험을 볼 때, 문제에서 제시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그대로 집어넣고 이를 이해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과는 다릅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맞힌다**”라는 **명확한 목적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고 구획하며, 주어진 사실을 그대로 활용해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Principle (하) 교재 역시 Principle (상)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핵심 접근법을 중심으로 유사한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다양한 형식적 사고의 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시험장에서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야말로 안정적인 기본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즉,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덧붙여, Principle (하)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형식적 사고의 틀을 이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낯선 제시문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배운 원리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LEET의 제시문과 문항, 그중에서도 **언어이해 영역은 주어진 시험시간에 비해 제시문의 분량과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읽고 처리하는 방법을 습득하지 않으면, 문제를 온전히 풀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Principle (하)에서는 주로 언어이해 과목의 문제를 다루면서, Principle (상)에서 배웠던 “**LEET식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LEET 문제에서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하고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

론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교재를 "LEET식 독해 능력"을 기르는 교재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The LEET BIBLE Principle (하) 교재를 통해 배우실 LEET 언어이해 제시문 및 문항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첫독해와 재독해라는 도구를 통해, LEET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익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과거 LEET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제시문의 유형, 구조, 패턴을 귀납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익히면, 새로운 제시문이 주어지더라도 기존의 틀에 맞춰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구조적 독해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LEET 고득점의 열쇠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와 접근방식을 철저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Principle (하)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LEET식 사고의 틀"을 내재화하고, 명실상부한 LEET 고득점의 주인공이 되는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The LEET BIBLE Principle (하)의 목적 : 정보습득방식과 정보처리방식의 질적 향상

The LEET BIBLE Principle (상)에서는 LEET 시험의 방향성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기반으로,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LEET식 사고의 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Principle (하)는 **이를 바탕으로, 흔히 말하는 "독해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독해력"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사회통념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저는 사실 "독해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감이 있습니다. **정의 자체가 너무 수험적으로 불분명하여 수험생들에게 막연한 어려움만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The LEET BIBLE의 용어로 학습 대상을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책은 **정보 습득 방식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세부적인 전술을 각론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그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험형 텍스트가 필연적으로 가지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정보습득 태도와 사고방식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사고의 틀"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셨다면, Principle (하)를 바로 시작하기보다 Principle (상)을 다시 꼼꼼히 복습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LEET에서 요구되는 사고방식에 대한 기초를 확실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Principle (상)을 통해 "형식적 사고의 틀"의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그런 과도기적 현상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정보 습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핵심 원인은 바로 비효율적인 독해방식에 있었습니다. Principle (하)는 이러한 “비효율적 독해방식”을 개선하고, LEET에 최적화된 독해방식을 익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본서를 따라오시면서 수험생들은 자연스럽게 **LEET 문제에 적합한 독해방식을 체득하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보습득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Principle (상)이 추리논증을 통해 언어이해를 설명했다면, Principle (하)는 언어이해를 통해 추리논증을 설명합니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이해”로 “추리논증”을 이야기하는 시간

우선 “비효율적인 독서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일반적인 글 읽기 방식을 그대로 LEET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책을 읽듯 단순히 앞에서부터 글을 따라가면서 읽거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임의로 활용하려 하고,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LEET처럼 명확한 목적성을 가진 시험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LEET가 무엇을 위한 시험인지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LEET는 수험생이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사실관계에서 핵심 논리를 추출하고 이를 법문(선지)에 포섭하는 능력입니다.** 해당 측면에서 바라볼 때, LEET에서는 사실의 모든 면을 100% 이해하고 소화해 판단하는 능력보다는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Principle (하)에서는 이런 “효율적 독해방식”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주요 방법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첫독해와 재독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처음부터 본문을 모두 읽으며 완벽히 이해하거나 외우려는 전통적인 독해방식을 지양합니다. **처음에는 정보의 강·약을 조절해서 본문의 중요한 요소만을 기억하려고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문제 풀이 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읽는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처음 독해 시에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해두어, 나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만 집중해 재독해하는 방식**으로 독해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과정에서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어떤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지 판별할 기준을 세우는 작업**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재독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추가과제로 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독해의 선’ 기준** 설정입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LEET 기출 제시문과 문제 유형을 귀납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과거에 출제된 제시문 유형과 문제 출제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체화하여, 제시문을 읽을 때 **"이 유형의 제시문은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되겠구나"**라는 예측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연습 과정에서는 머릿속에 글의 **"틀"**을 미리 세우고, 제시문 내용을 그 틀에 맞춰 끼워 넣는 수동적이고 구조화된 독해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제시문의 논리적 구조와 출제 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능력을 목표**합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출제자의 의도와 패턴을 체득하는 훈련을 포함**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학습하면, 새로운 제시문을 접했을 때도 문제 유형을 예측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찍어서 맞힐 때 조금 확률을 높이는 전략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Principle (상)**은 "추리논증"적 사고, 즉 "형식적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추리논증과 언어이해를 포함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Principle (하)**는 "언어이해"적 사고를 중심으로, LEET 제시문에 특화된 독해 방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언어이해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어이해적 사고를 기반으로 추리논증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Principle (상)이 추리논증으로 언어이해를 이야기했다면, Principle (하)는 언어이해로 추리논증을 이야기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ET의 본질: 독해력보다 중요한 정보 처리와 형식적 사고

실제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The LEET BIBLE의 Principle (상)과 (하) 내용을 충분히 익히신다면, 언어이해든 추리논증이든 LEET 문제를 LEET답게 푸는 방식, 즉 **형식 속에 이해를 배치하는 작업**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이 접근법은 제시문의 완전한 이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사고 과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실전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 고득점을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LEET는 명확한 목적성을 요구하는 시험인 만큼, 효율성과 전략적인 사고가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점은, **제가 제시하는 이 접근방식이 흔히 다른 강의나 교재에서 강조**

하는 "독해력의 향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해력은 "LEET 제시문을 읽기만 해도 내용이 머리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정리가 되는 능력"을 떠올릴 것입니다.

일부 교재나 강의에서는 이러한 독해력과 이해력을 키우면 제시문과 문제를 100% 이해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접근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LEET라는 시험의 특성 때문입니다. LEET는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거나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대신, 제한된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제시문과 문제를 100% 이해하려는 시도는 시험의 본질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본서는 전개됩니다.**

이렇듯, The LEET BIBLE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을 맞히는 능력"을 별개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개개인의 배경 지식과 역량 차이로 인해 모호하고 주관적인 "독해력"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하고, 옳이 답을 맞히기 위해, 필요한 정보 습득과 처리 방식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접근방식이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해력과 이해력을 향상시켜 고득점을 얻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독해력과 이해력을 높여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강조하는가?"

맞습니다. 독해력과 이해력을 올려 고득점을 받는 방법도 분명 존재하며, 이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방향은 다릅니다. **이 책은 고차원적인 독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고득점을 목표로, 필사적으로 노력한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높은 독해력을 가진 소수의 상위권 수험생만이 따라갈 수 있는 화려한 성공 사례를 제시하기보다는,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오해했던 부분과 틀린 사고 과정까지도 여과 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사고를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얻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어떻게 실전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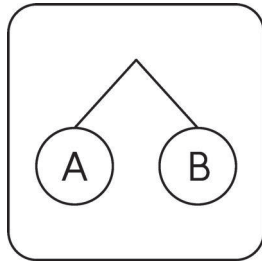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Principle (하)와 함께 LEET 정복을 위한 기초 다지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사고방식의 기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제2장부터는 언어이해 문제의 주요 유형을 탐구하며, The LEET BIBLE이 제시하는 핵심 포인트를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문제 풀이 방법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EET에 최적화된 사고방식을 체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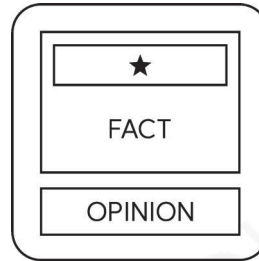
한번 시작해 볼까요?

5 LEET 독해 정복 핵심 전략 #2 언어이해 제시문 빈출패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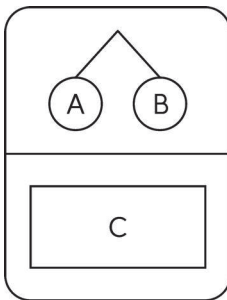
Principle (하)에서는 언어이해 제시문을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접근합니다. 이 분류 체계는 각각의 유형에 대해 세부적이고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섯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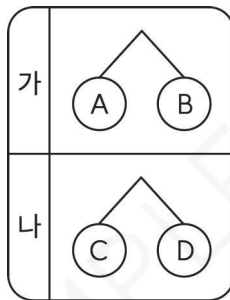
1유형
이항관계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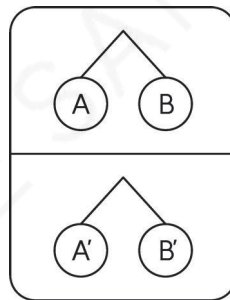
2유형
과학잡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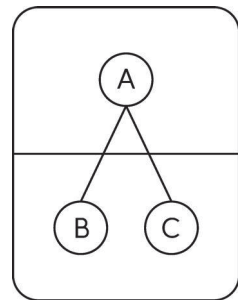
3-1유형



3-2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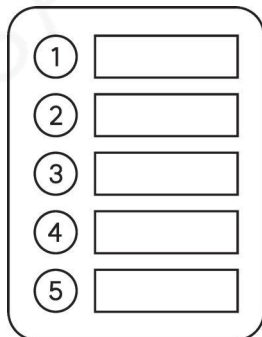


3-3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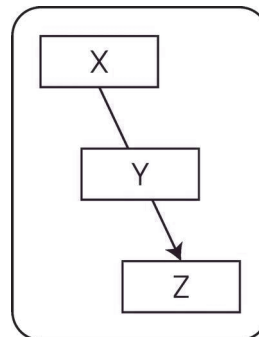


3-4유형

이항관계 심화형



4유형
고전·문학형



5유형
과학원리형

Debate Session

✓ 선배 수험생의 생생한 이야기와 리트바이블의 코멘트

본 세션은 The LEET BIBLE으로 수험생을 지도하면서 수험생분들과 직접 겪었던 사고 교정 과정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린 리트바이블의 원리에 대하여 부가 설명을 덧붙이고, 심화 이해 및 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등을 함께 나눠 보는 장입니다.



Question #1

밑줄을 어떤 식으로 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과 머리의 분리'라는 개념이 이해가 가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쪽 밑줄 그은 포인트가 개념이었기 때문에 대응시킬 조사에 밑줄을 긋는 순간 개념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느낌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껴이 때문에 머리가 자연스럽게 조사 쪽을 기억하려고 하게 되고 개념어는 하나도 기억나질 않아서 그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 '크게 읽기'까지 안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손과 머리의 분리'를 통해 언덕개념을 형성하라는 말의 본질은 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위치를 설정하여 돌아올 때 효율적으로 대응시킬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혹시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역으로 활용해 보아도 괜찮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크게 읽기 차원이 내용적인 큰 부분을 기억하기 위해 표시들을 핵심 키워드에 치고, 대응할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 어떤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밑줄 치는 방식은 반드시 특정 조사나 구체적인 부분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을 읽을 때 "손과 머리가 분리"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는 계속 제시문의 구조 파악과 정보 습득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의식적 작업), 손으로는 기계적으로 형식적 변수에 밑줄 또는 표시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무의식적 작업). 이 방법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개량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LEET 시험에 익숙해지면서 파악한 행동 현상적인 특징은 몇 가지 중요한 패턴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역시 공통적인 현상이 발현되었습니다. 이 지점을 상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사에 굳이 밑줄을 치지 않아도 중요한 개념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각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시문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어가 자연스럽게 주의를 끌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념어조차 놓치고 있다면, 이는 글의 중심 소재에 대한 집중이 부족하거나, 특정 부분에만 과도하게 집중하여 글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밑줄은 주된 기억 속에 남지 않을 변수들에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핵심적인 개념은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정보나 변수들에 표시하여 재독해 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의식적 작업에 대한 능숙도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점수의 선순환과 악순환은 같은 이치에서 반복됩니다.

셋째, 관계나 속성 같은 중요한 형식적 정보를 줍다 보면, 이를 통해 오히려 세부적인 정보가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제 풀이 과정에서 세부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재독해를 통해 처음에 놓쳤던 변수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추가적인 변수가 됩니다. 즉,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러한 방식이 익숙해지자, 문제 속 변수를 놓치지 않게 되었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고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밑줄긋기 방식은 단계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전체를 장악하는 데 필요한 밑줄 치기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꾸준히 연습하여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Question #2

밑줄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데, 밑줄에 대한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원래 언어이해 제시문을 읽을 때 밑줄 없이 글을 읽었는데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려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책의 방식에 따라서 밑줄을 그게 되면 밑줄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서 그와 비례하게 첫독해 시 시간이 길어지는데, 밑줄을 그을 때 정확한 마음가짐(자세)을 여쭙고 싶습니다

밑줄이라는 무기의 적용 과정에서 아직 논의의 평면적 변수에 대한 내공이 과도기적으로 있을 때 제가 주로 받던 질문입니다. 답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수험생께서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것은 '밑줄에 대한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게 개량/개선 하고자 하는 마인드 셋입니다.

1. 밑줄에 대한 내공 증가, 이에 따른 무의식적 영역으로의 전환

첫째, 밑줄이란 사실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① 재독해 과정에서 내가 놓쳤던 변수들을 다시 보기 위한 장치. ② 재독해 과정에서 빨리 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과정들은 사실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보를 습득할 때 의식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무의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서로 다릅니다. 내공이 부족할 때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훈련을 통하여 상당 부분 무의식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상당수의 밑줄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즉, 논의의 평면적인 변수들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여 줄을 쳐나갑니다.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차원의 구획과 문단 간 관계를 확정 짓는 것들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은 논어의 평면적 변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밀줄치고, 머리에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현재 독해 과정이 오래 걸리신다고 하는 이유는, 이 무의식에서 일어셔야 하는 작업들이 자꾸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익숙도가 증가함에 따라, 논어의 평면적 변수들 가운데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각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연습을 하면 속도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겪은 단계였습니다).

2. 밀줄의 개수에 관하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밀줄은 개인마다 개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약한 변수들은 줄치고, 너무 익숙한 변수들은 줄 치지 않더라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각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습 가운데, 자신에게 굳이 밀줄을 치지 않더라도 각인되는 변수들은 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개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밀줄 치는 변수들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내공이 올라갔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속도 역시 따라오시게 될 것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겪은 단계였습니다).



Question #3

밀줄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데, 밀줄에 대한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1) 언어이해 모의고사의 난이도에 따른 표준점수/백분의 편차

사실 모의고사를 풀 시 평균이 리트에 비해 높은 시험들 (예를 들어서 16 ~ 17)이 넘어가는 모의고사는 22~23~24개를 곧잘 맞추며, 무조건 백분위 85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나 평균이 15, 14 이하인 모의고사들은 몇 번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백분위가 낮게 나오며 심하게는 최근 모의고사에서 평균보다 하나 더 맞춘 정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어려울수록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본인 생각으로는 지문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잘 읽히는 문제에서는 곧잘 하지만, 지문이 이해가 잘 안되거나 난해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나름 읽을 때 본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드는 느낌을 되살려보았을 때, 지문의 구조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첫 독해에서의 구조화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따라서 재독해 시에 차분히 돌아와서 찾을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재독해시 문장, 또는 문단을 통째로 차분히 읽는 것이 아니라, 몇몇 단어를 기준으로 애써 읽게 되고 한 문단만 읽고 바로 넘어간다든지 하여 바로 보이는 정답을 놓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맞아 보이는 정보 같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

는지 기억이 안 나가거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맞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명확하게 재독해하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는 이유로도 틀리는 것들이 있으며,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본 모의고사들의 언어이해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분위 90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추리논증에서는 지속적으로 백분위 90, 95를 넘기고 있는 것을 보면 언어이해에서 일종의 슬럼프가 오지는 않았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의고사들의 추세만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작년 언어이해 시험의 평균이 15점 정도여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합니다. 특히 작년과는 본인이 문제 푸는 전략과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고, (작년에는 언어 초회독을 의식적인 차원의 구획 없이 2분 내로 끝내고, 대안을 시키는데 집중하였지만, 올해는 구조화에 힘을 들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안에 활용하는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작년 모의고사는 불안정했지만, 본 리트에서 언어이해는 어찌저찌 20개로 나름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왔기에 전략을 바꾸어서 괜히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 지문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9지문을 읽고, 나머지 1지문은 찍거나 시간이 남으면 3~4분 내에 1문제 정도만 푸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고사 지문들을 나름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 내용으로는 지문의 구조가 어떠한 식으로 되어있는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문의 구조를 잡는 데 핵심적인 문장, 즉 차원을 나누어주거나 정의를 잡아주는 문장 등이 "어떻게 생긴 문장인지"도 정리하여 모아서 보고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점수(22~24개)를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출제자가 반타작도 못하게 출제한 제시문을 더 맞히려고 노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설과 기출 간의 가장 큰 양상 차이가 언어이해 제시문의 수준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정보 가운데,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평균이 15~14 이하인 제시문들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엄연히 출제자가 제시문의 수준을 너무 지엽적으로 만들었거나, 논리 사고방식이 납득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문제들은 수준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런 제시문들을 분석하는 데 에너지를 쏟거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정답률 정보가 제공된 문항분석표를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고의 레이어를 2~3개 더 추가하는 것이, 수험생에게는 큰 영향을 주며, 저는 오히려 판단 기준이 오염될 가능성이 커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의 레이어가 무슨의미인지 이해하고자 2019년도 추리논증 1번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시문의 내용에서 형식적으로 구획할 변수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에서의 핵심 구획은 당사자 차원인지, 당사자 차원이 아닌지였습니다. 기출이었다면, 여기서 사고의 레이어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설은 한 번 더 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 본인에게 알려야 할 것을 통쳐서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리는 것인데, '이유와 절차 및 근거'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꼬입니다. 기출이라면 그렇게 내지 않을 텐데, 사고의 분류를 조금 더 사설에서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입니다. 풀어 보셨겠지만 제시문의 내용에서 형식적으로 구획할 변수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에서의 핵심 구획은 당사자 차원인지, 당사자 차원이 아닌지였습니다. 기출이었다면 여기서 사고의 레이어가 끝납니다.

앞서 사고의 레이어 2~3겹이 추가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갖느냐를 분석해 보면 바로 기억의 정도에 혼선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기출이라면, 인지적으로 기억이 충분히 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재독해를 하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제시문들은 어렵습니다. 즉, 그 수준이 사설의 경우, 다른 불필요한 장애물들과 함께 같이 문제화되기 때문에, 그 정확도 내지 실행 여지가 기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기출을 기준으로 기출 제시문이 갖는 형태와 문제 출제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최근의 언어이해는 새로운 언어이해의 출제 방식으로 규정하고, 같은 경향으로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어시험의 경우, 문제의 구성과 난이도와 같이 큰 틀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차원의 구획'과 같은 사고 과정에 익숙해진 수험생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근 언어이해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3~4개년간은 대체로 동일한 출제 방식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이 형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의 난이도 상승 역시 출제진이 의도적으로 난도를 높였다기보다는, 기존과 같은 방향으로 문제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올해 역시 유사한 출제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의도치 않게 구성은 유사하나, 수험생들은 쉽게 느끼는 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양상이 바뀐다기보다는, 제시문의 난이도 측면에서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방향의 우려는 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조화에 힘을 들이는 데 익숙해지고, 뒤에서 말씀드릴 질의 2.의 사항을 병행하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남들은 더 어려워할 부분에서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1~2문제를 맞히고, 형식적 사고를 이용한 선지에는 구조적 사고를 적용하여 시간을 버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LEET BIBLE

선배 수험생님의 이야기

The LEET BIBLE 선배 수험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후기 중에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만하고,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도 잘 녹아있는 이야기가 있어 간단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학습 중에 깨달은 점

우선 사설 모의고사를 풀며 느낀 것은, 언어에 집중했더니 추리가 다시 살짝 감이 떨어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언어와 추리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셨고 저도 그동안 리트바이블을 보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역시 언어와 추리를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분 지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좀 더 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모의고사를 함께 리뷰하는 수업을 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간 제가 선생님께 몇 달간 들어온 강의를 비롯하여, 예전에 학원 수업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술하게 들어왔던 것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언어를 풀면서 그 지문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그래, 그럴겠지. 극소수를 제외하면 다들 비슷하게 지문을 읽어나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제가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일 뿐 실제 깨달은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는 위와 같이 생각했지만 막상 시험(모의고사)을 풀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설 모의 첫 지문(헌법 관련 슈미트와 그릴레 나오는 지문)을 풀어나가면서 쉬운 지문이었지만 저는 사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선생님은 3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문은 얼추 괜찮은 속도로 읽어갔지만 문제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지문을 다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그래, 이 시험은 지문을 다 이해해서 푸는 시험이 아니니까 절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뿐이었고 저는 실전에서 계속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은 선생님과 같이 리뷰하면서였습니다. 지문을 읽는 것이나 읽고 난 후의 기억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랐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읽었는데 왜 차이가 났지?' 생각해 보니 실제 모의고사를 풀 때는 제가 기억하는 정도만으로는 시험문제를 풀 수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즉, 저는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뭔가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이 오면 '아, 내가 잘못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문제로 가서 선지를 봤는데 5개 선지 모두가 한 번에 기억이 안 나고 두세 개만 정오 표시를 할 정도가 되면 스스로 이번 지문 망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역시 비슷하게 지문을 기억하고, 문제에서 선지 두세 개만 기억나는 동일한 상황에서 저는 '아, 이거 말려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 선생님은 '돌아가면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다시 돌아가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네, 제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드리고, 그 가운데 답을 1) 어떻게 찾는지, 2)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 문제를 풀 때에도 어디까지가 기억날 것이고, 무엇이 기억나지 않을지 하나하나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문 리뷰를 하나하나 하면서 저는 약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았다고 쓴 것들은 선생님이 그간 계속 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고 저는 그동안 계속 '그래,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뭔가 진짜 깨달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알게 되었다면, 자꾸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실 것이고, 이럴수록 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한 문제 한 문제 대할 때 내 자세, 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제가 왜 작년 시험에서 '왜 그렇게 남들은 쉬운 지문이라는 첫, 마지막 지문에서 그렇게 시간을 오래 썼나?' 하는 생각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쉬운 지문을 모두 기억하고 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①쉬운 지문은 비교적 어려운 지문보다 머리에 잘 들어오고 잘 읽히는 느낌이라 지문을 신나게 풀쳐 가면서 다 읽고 냈는데, ②막상 문제를 풀려고 해보니, 선지가 모두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 되니 스스로 '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③돌아가서 확인하려 해도 어딜 확인해야 할지 몰라 눈이 막 지문 전체를 그냥 훑기만 하다가 ④시간을 보내고 ⑤망했다는 생각으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언어 지문들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이런 거는 잘하는 사람도 다 똑같다~ 모두가 다 이 정도 기억한다.' '선지가 기억 안 나도 당황하지 마라~ 어떻게 다 기억하냐~' 이런 말을 정말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말들을 머리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선지 부분에서 '모든 선지가 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젠 제가 별도로 한 번 여쭙봤던 것인데,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혹은 짜증 나는 지문을 만났을 때 선생님은 극복 과정이 저랑 달랐습니다.

▶ 이 부분에서 이제 깨달으셨다면,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시험장에서의 실전적인 난이도가 조절될 수 있을 겁니다. 별다른 데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에서 대응식으로 찾아간다는 마인드이면 충분합니다.

중간쯤에 과학지문(근육 마디 나오고, 그림 나오고, 원섬유 굵은, 가는, 등등 지문)이 나왔을 때 저는 그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림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림만 잘 이해하고 원리만 알면 과학지문은 정말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다는 말이 기억이 나서 그 지문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글과 그림을 연결시켜 봐도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살짝 맨붕이었고, (그림만 파악하면 끝인데 이거 그림도 모르겠는 거 보니) 또 이번 시험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리뷰하는 과정을 보니, 저랑 똑같은 부분에서 '이 부분 여차피 기억 안 나고' '아, 짜증이 좀 난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고, 문제 선지에서 '이 선지, 이 선지는 기억이 안 났다'는 말을 듣고 저는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똑같은 사고과정인데 나와 선생님의 차이는 진짜 뭐였을까.'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이런 지문 읽고 짜증이 나지 않냐,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저 역시도 차이가 나지만, 여차피 문제를 만드는 방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몰랐을 때에는 선지를 활용하거나, 제가 놓쳤던 관계, 대응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인드의 차이가 시험을 좌우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과외도 알아보고 할 때 걱정은 시험에 다시 도전하려고 해도 언어가 계속 두려웠고, 뭔가 심장이 뛰고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 가장 걱정되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시험에서 제가 하나라도 기억 못하거나 이해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잘 읽은 거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망했다'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집중도는 완전 하락하는데 반해 심장은 크게 뛰고 호흡이 잘 안 되면서 신체적으로 에너지는 더 많이 소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께서 늘 말씀해주셨던 거 같네요.

▶ 네 그래서, 제가 시험 전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 쓸데없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그것을 아껴야 추리 후반부에 가서, 속도의 기어를 낮추고 계속 끊임없이 시킨 것을 시킨 대로 기계처럼 하기 위해 체력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체력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내 두뇌를 REBOOT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머리로만 이해했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일까를 생각해보니, 그동안은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저도 다 기억 못해요, 이런 느낌으로만 기억해요, 선지 다 기억 안 나죠. 돌아가야죠 등)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하는 수준(정도)과 제가 이해하는 수준(정도)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하지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 본인이 읽는 방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접근해 나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선생님이 아무리 그동안 '괜찮다. 여러분도 잘 읽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주셔도 선생님이 다 기억 못하는 정도와 나의 기억 못하는 정도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설 모의고사를 같이 리뷰하면서 이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풀어서 그런지, 리뷰하면서 제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생생히 기억나서 그런지 더 선생님의 말이 와닿게 되었고, 내가 글을 못 읽은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인드의 차이와 문제 다루는 것의 차이에서 점수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직접 깨닫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간단한 이야기인데, 위에 주절주절 길게 쓴 것은 제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들을 풀어서 한 번 써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선생님께서 스치듯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선생님이 했던 생각들이나 고민 과정들을 들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또 이 리트바이블의 여러 가지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

이제 얼마만 남은 시간이라 제가 약한 부분을 좀 유형화시켜서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연습을 더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 오랜 기간 궁금증이었던, '쉬운 지문을 왜 쉽게 풀지 못했다' 하는 문제가 사실은 해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은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깨닫는 과정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깨달음이 온 데에는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고, 적용하면서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번 사설 모의 언어 문제 12번처럼 <보기>가 나오고 지문이랑 비교하는 문제들을 유형화시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바로 떠올렸던 것이 예전에 기출 중에서 독일 나치 수용소 지문 마지막 문제가 <보기>를 준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생각해보면 <보기> 주어진 문제들에서 틀린 것들이 여럿 있었고 쉬운 건데 오래 고민해서 맞히긴 했으나 시간을 소비한 문제들이 있었던 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문제점을 찾고 또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또, '질적 판단보다는 양적 판단(있냐, 없냐)을 먼저 해서 판단하는 것.'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중입니다. 예전에 틀렸던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찾아보며 확인하는 중에 있고요.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있다 없다'에서 정답이 되는 것을 보고 요즘 다시 놀라는 중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평일에는 퇴근하고 나서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잡고 풀로 집중해서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것이 요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 이틀은 무조건 풀셋을 풀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일에도 시간을 만들어서 꼭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열심히 한다'와 나의 '열심히 한다'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퇴근 후에도 집중해서 긴 호흡의 공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긴장의 끈을 바짝 당겨야 할 것 같네요.

▶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게 된 순간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의 양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펼쳐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있는 것 중에서만 건진다, 이런 마인드가 부담감을 덜어주고, 오히려 더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읽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파이팅입니다!

CHAPTER

02

이항관계 기본형



The
LEET
BIBLE™

“

이항관계 기본형은
명시적으로 문단간 관계와
문단의 기능을 알려주므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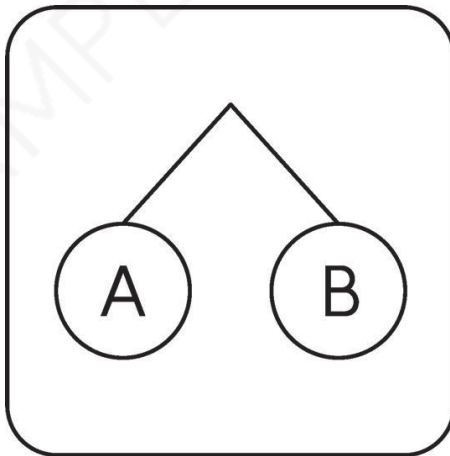
쉬운 문제는 왜 쉬운지를 알고,
쉬운 문제를 잘 찾아내
틀리지 않고 빠르게 풀어내는 순간
LEET의 기본점수가 잡히게 됩니다.

제 2 장

이항관계 기본형

The LEET BIBLE

언어이해 제시문들 중에서 쉽다고 느껴지는 제시문은 대체로 “이항관계 기본형” 형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의 제시문은 내용과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하여, 수험생들이 비교적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항관계 기본형의 구조 도식화

이러한 제시문에 대해 단순히 “내가 맞았으니 쉽다”라고 넘기기보다는, **쉬운 제시문들을 묶어서 형식적·구조적 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제시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과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범죄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고 있고, 공소제기 전인 수사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백지상태에서 판단하여야 할 법관이나 배심원들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보장에 근거하여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피의자의 자백이나 전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언론 보도는 유죄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도 있다. 하지만 보도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빈 사건 판결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피의자를 유죄로 취급하는 언론 보도가 예단을 형성시켜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관이나 배심원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확신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이른바 ‘현실적 예단’의 법리를 형성시켰다. 이후 ㉡리도 사건 판결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보도의 내용이나 행태 등에서 예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개개의 배심원이 실제로 예단을 가졌는지의 입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법절차의 위반을 들어 유죄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일반적 예단’의 법리로 나아갔다. ㉢세퍼드 사건 판결에서는 유죄판결을 파기하면서, ‘침해 예방’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상세한 질문을 통하여 예단을 가진 후보자를 배제하고, 배심원이나 증인을 격리하며, 재판을 연기하거나, 관할을 변경하는 등의 수단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보도기관에 내린 ‘공판 전 보도금지명령’에 대하여 기자회견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네브래스카 기자회견 사건 판결에서는 침해의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가장 강력한 사전 예방 수단을 쓰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을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를 조화시키면서 범죄 보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세퍼드 사건에서 제시된 수단과 함께 형사재판의 비공개, 형사소송 관계인의 언론에 대한 정보제공금지 등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예단 방지 수단들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견해가 있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우려도 있어, 이 수단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언론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이 꼭 상충된다고만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 측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네브래스카 기자회견 사건 판결의 의미를 새기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한 범죄 보도로 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는 구조에 대항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보도기관에 전하여, 보도가 일방적으로 편향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가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범죄 보도의 경우보다 적법절차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도 제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반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 보도는 예단 형성의 위험성이 큰데도 헌법상 보호를 두텁게 받는다고 비판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실질적 조력에는 법정 밖의 적극적 변호 활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할 기회나 반론권을 제약하지 말고, 언론이 검사 측 못지않게 피고인 측에게도 대등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법원-수사기관-변호사회-보도기관’의 자율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1.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피의자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 ② 언론에 제공된 변호인의 발언은 공정한 형사재판을 침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 ③ 공판 전 보도금지명령은 공정한 형사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 예단 방지 수단이다.
- ④ 언론의 범죄에 관한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법관 재판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 ⑤ 소송 당사자 양측에게 보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기회를 대등하게 주어 피고인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 ~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 공정한 형사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발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은 예단에 대한 피고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였다.
- ③ ㉢은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내에서 예단의 사전방지 수단을 제시하였다.
- ④ ㉡에서 ㉢으로 이행은 공정한 형사재판의 측면에서 보면 후퇴한 것이다.
- ⑤ ㉢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경계한 것이다.

3. ㉔를 뒷받침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법원이 배심원을 격리하였으나 격리 전에 보도가 있었던 경우
- ② 법원이 관할 변경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전국적으로 보도가 된 경우
- ③ 법원이 재판을 장기간 연기하였으나 재판 재개에 임박하여 다시 언론 보도가 이어진 경우
- ④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사실을 공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검사에게 그 사실에 대한 공개 금지명령을 내린 경우
- ⑤ 변호사가 배심원 후보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나 후보자가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시문은 전형적인 이항관계 기본형 제시문에 해당하며,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제시문으로 분류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1문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이항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며, 독자들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EET 언어이해에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각인해야 할 문장들은 바로 이러한 문장들입니다. 제시문 속에서 문단 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거나, 논리적 대립을 설정하는 문장은 글의 구조와 논점을 파악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러한 문장들을 **첫독해 단계에서 빠르게 파악하고 표시해 둔다면, 새롭게 입력될 정보들 간의 관계를 연결할 주춧돌이** 됩니다. 이와 같이 힌트를 주는 문장들을 의식적으로 각인하는 연습 하시기를 바랍니다.

[1문단]

범죄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고 있고**, 공소제기 전인 수사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백지상태에서 판단하여야 할 **법관이나 배심원들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보장에 **근거하여**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피의자의 자백이나 전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언론 보도는** 유죄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도 있다**. **[핵심 문장]** 하지만 보도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범죄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피고인의 권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	------------

이러한 문장은 이항관계 기본형뿐 아니라 추리논증의 대응형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글의 구

조를 구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 의식적으로 각인하고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전적 중요도를 고려할 때 ‘각인’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해당 제시문은 이항관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새로운 정보가 입력될 때마다 이를 위와 같은 두 가지 차원 속에 능동적으로 배치해 가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정보를 단순히 개별적인 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차원 속에서 정리하고 배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².

왜 이런 작업을 해야 할까요? 첫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정보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정보들은 다시 돌아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돌아올 큰 틀, map은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사고방식은 제시문의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문단 관계를 파악하는 첫 단계가 되고, 정보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틀 안에서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과제가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제시될 때, ‘피고인의 권리 차원’인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차원’인지를 구획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논의 영역)**, 논의의 평면적 변수들을 체크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준비(**손: 밑줄의 영역**) 또한 훈련을 통하여 무의식적 영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논의의 평면적인 변수들을 한 번 짚고 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은**: 전부와 일부를 구획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량을 나타내거나, 예외를 나타낼 수 있는 논의의 평면적 단어입니다.
- **공소제기 전**: “시간의 전·후”라는 구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상으로 전(前) 차원을 “수사단계”라는 다른 단어로의 패러프레이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법관이나 배심원들에게**: 주체 또는 객체가 “A or B”로 제시되는 경우, 사실일치 문제에서 이를 대응하라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밑줄 장치”를 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었을 때쯤이면 토할 정도로 반복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자동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문단]

미국 연방대법원은 ㉠ 어빈 사건 판결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피의자를 유죄로 취급하는 언론 보도가 예단을 형성시켜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관이나 배심원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확신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이른바 ‘**현실적 예단**’의 법리를 형성시켰다. 이후 ㉡ 리도 사건 판결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보도의 내용이나 행태 등에서 **예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개개의 배심원이 실제로 예단을 가졌는지의 입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법절차의 위반을 들어 유죄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일반적 예단**’의 법리로 나아갔다. ㉢ 셰퍼드 사건 판결에서는 유죄판결을 **파기하면서**, ‘침해 예방’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상세한 질문을 통하여** 예단을 가진 후보자를 **배제**하고, 배심원이나 증인을 **격리**하며, 재판을 **연기**하거나, 관할을 변경하는 등의 **수단**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보도기관에 내린 ‘**공판 전 보도금지명령**’에 대하여 **기자협회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 네브래스카기자협회 사건 판결에서는 **침해의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가장 강력한** 사전 예방 수단을 쓰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럽게 많은 사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2문단부터는 본격적으로 1문단에서 제시한 이항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구획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 어빈 사건 판결, ㉡ 리도 사건 판결, ㉢ 셰퍼드 사건 판결, ㉣ 네브래스카기자협회 사건 판결과 같이 네 가지 사례가 등장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단순히 나열된 개별 사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즉, 차원의 구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체계적으로 정리라고 하지만, 실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할 작업은 단순히 ‘어디 차원이겠구나’라고 연결하는 생각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순간의 능동적인 생각이 기억력과 문제 풀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위 네 개의 판결은 어떻게 구획될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정보를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피고인의 권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 어빈 사건 판결 ㉡ 리도 사건 판결 ㉢ 셰퍼드 사건 판결	㉣ 네브래스카기자협회 사건 판결

그리고 나서 문제 2번의 정답 선지인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 ~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에서 ㉢으로 이행은 **공정한** 형사재판의 측면에서 보면 **후퇴한 것이다**.

일상어로 "후퇴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고 질적 판단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형식적 분류입니다. 즉, 해당 선지는 ㉠ 리도 사건 판결과 ㉢ 셰퍼드 사건 판결이 각각 다른 차원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정보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 어빈 사건 판결, ㉠ 리도 사건 판결, ㉢ 셰퍼드 사건 판결이 모두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한 차원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결코 "후퇴했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즉, "후퇴했다"라는 의미는 같은 차원이 아니다, 그 방향성이 다르다는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형식적 구획에 익숙해진다는 의미는 이렇듯, 언어이해의 진술이 단순히 일상적인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을 통해 차원의 구획을 적용한다는 작업의 의미를 갖습니다³.



문제 LINK

못봤던 단어로 봤던 관계 표현하기(차원의 구획)

○ 2018년도 언어이해 제시문 4~6번 공산당/전투적 반공주의 제시문의 5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② 전투적 반공주의 역사가들은 지하 출판한 역사서를 통해 '희생자 의식'을 전복하려 했다.

○ 2019년도 언어이해 제시문 그리스, 로마 제시문 4~6번 제시문의 5번을 함께 연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⑤ ㉠, ㉡, ㉢ 모두 로마의 정체 변화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 문제 모두 '후퇴한 것이다,' '전복하려 했다,' '정체 변화'와 같은 일상어들을 통하여 차원의 구획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라고 수험생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2문단에서는 세세한 정보들을 기억하기는 어려우며,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돌아올 문단이었습니다. 친절하게도 이 제시문은 이미 ㉠, ㉡, ㉢, ㉣을 구획해 두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 조건을 부가하거나, 조건을 추가한다거나, 방법 변수를 제시하는 등 관계를 설정하는 구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단을 재독해할 때, 실전적으로 다양한 변수들 사이에서의 관계들을 빠르게 보기 위한 밑줄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밑줄의 대상과 방법은 수험생 분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최적화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보의 습득"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일단 넘어가 보세요.

㉠어빈 사건 판결에서 (...중략...) 입증되면, 법관이나 배심원이 (...중략...) 확신하더라도 (...중략...) 파기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후 ㉡리도 사건 판결에 와서는, (...중략...) 인정이 되면, 개개의 배심원이 (...중략...) 따지지 않고, (...중략...) 나아갔다. ㉢세퍼드 사건 판결에서는 (...중략...) 파기하면서, (...중략...) 제시하였다. 즉, (...중략...) 통하여 (...중략...) 등의 수단을 언급하였다. ㉣네브래스카 기자협회 사건 판결에서는 (...중략...) 않은 데도 가장 강력한 (...중략...) 위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구와 절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한 장치가 관계들을 빠르게 보기 위한 시각적인 언덕으로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즉** : 앞에 있는 정보와 뒤에 있는 정보가 같다는 관계를 빠르게 보기 위하여 밑줄 장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최대한** : 관계를 짓는 표현으로 최상급표현으로서, 사실일치에서 문제될 수 있는 논의의 평면적 표현입니다.

[3문단]

이러한 판결들을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를 조화시키면서 범죄 보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세퍼드 사건에서 제시된 수단과 함께 형사재판의 비공개, 형사소송 관계인의 언론에 대한 정보제공금지 등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예단 방지 수단들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견해가 있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우려도 있어, 이 수단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제시문의 전체적인 이항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쉬운 제시문에서는 이처럼 글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장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이러한 명시적 제시가 과연 어떤 효과를 낳는지는 문제를 풀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문장은 단순히 이항관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읽지 않은 뒷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를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즉, 피고인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이항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될 것임을 안내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문장은 단순히 개념 간 “관계를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의 양상”까지도 미리 그 방향성을 알려줬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후 제시되는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이해 못하더라도 결론과 방향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의 하나의 소재들로

뭉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장을 통해서 쉬운 제시문의 특징을 파악하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정보를 기능과 중요도에 따라 위치시키고, 차원에 맞춰 기획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⁴.

이런 능력은 시험장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생소한 정보가 쏟아지더라도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식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의적인 오해를 최소화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위치 속에 두고 가는 전략적인 정보습득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쉬운 제시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어려운 제시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점수의 변동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문단]

[핵심 문장] 그런데 언론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이 꼭 상충된다고만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 측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네브래스카 기자회견 사건 판결의 의미를 새기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한 범죄 보도로 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는 구조에 대항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보도기관에 전하여, 보도가 일방적으로 편향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범죄 보도의 경우보다 적법절차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도 제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반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 보도는 예단 형성의 위험성이 큰데도 헌법상 보호를 두텁게 받는다고 비판한다.

위와 같은 이항관계를 기획했었다면, 해당 문단은 다른 어떤 문단보다도 빠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
다. 그 이유는 또다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해당 문단의 존재 이유와 기능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피고인의 권리)를 조화하는 방향에서 두 개념이 상충하지 않는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즉, 독자는 이미 문단의 핵심 논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내용을 읽어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나머지 정보들을 읽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인지적 부담이 덜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브래스카 기자회견 사건 판결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재독해 과정의 검토 대상이므로,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일단 넘어가면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피고인의 권리 차원이 언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으로,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A의 B 형식으로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 개념으로

4 혼자 공부하실 때에도, 이렇게 스스로 내가 오늘 학습의 목표, 그리고 푼 문제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과 깨달음들을 아웃풋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학습 효과를 배가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발전됩니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이지만, **앞서의 논의를 통해 왜 이 개념이 필요한지, 문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느껴지는 난이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이 문단은 두 개념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이, 이전 논의의 연장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설명된 것뿐입니다.

이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쉬운 제시문이 쉬운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 습득 차원에서 비교적 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도 해당 이항관계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묻는 등 "Simple & Fast" 원칙에 기반하여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LEET의 모든 문제는 "Simple & Fast" 사고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가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⁵.

1. 뒷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당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우선, 정답이 되는 3번 선지를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논의의 평면적인 단어로서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수동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이 표현이 기억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판 전 보도금지명령에 대한 내용을 재독해하는 과정에서 이를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③ 공판 전 보도금지명령은 공정한 형사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 예단 방지 수단이다.

해당 문제에서 저는 정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정답이 아닌 선지들을 통해 언어이해의 선지 구성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출제자가 요구하는 형식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① 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피의자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 ② 언론에 제공된 변호인의 발언은 공정한 형사재판을 침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 ③ 공판 전 보도금지명령은 공정한 형사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 예단 방지 수단이다.
- ④ 언론의 범죄에 관한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법관 재판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은 대부분 재독해 과정에서 정보를 연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독학시에 단순히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를 분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⑤ 소송 당사자 양측에게 보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기회를 대등하게 주어 피고인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 2, 4, 5번 선지들은 제시문에 "그대로" 쓰여 있는 문장들이 아닙니다. 즉, 이 선지들은 단순히 정보를 암기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선지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Principle(상)에서 언급했던 문제점과 같이, 뉴앙스 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러한 현상을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고른 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를 풀 때마다 선지의 유형을 분석하고, 어떤 선지는 직접적인 정보 재현을 요구(대응형)하며, 어떤 선지는 논리적 확장을 요구하는지(단어의 실행을 통한 차원의 구획)를 구별하는 연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 ① **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피의자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④ **언론의 범죄에 관한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법관 재판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1번 선지는 제시문의 전체 논의 전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단 방지 수단의 핵심 전제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보도를 예방하려는 취지는 무엇일까요? 이는 해당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고, 범죄자로 인식하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선지는 단순히 특정 문장을 기억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전체 논의 구조의 차원을 구획하고, 그 상위 차원으로서의 근본적인 전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4번 선지 역시 제시문에서 대응되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피의자의 자백이나 전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언론 보도는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도 있다"라는 문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1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해당 대응 지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장이 등장한 이유는 살펴봅시다. 이 역시 ‘언론 보도를 사전에 제어하려는 이유’와 형식적으로 직결됩니다. 만약 법관 재판의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추후 논의는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즉, 제시문의 상당 부분이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문제 LINK 제시문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형식적 선지

○ 2016학년도 언어이해 제시문 20~22번 국가배상제도 제시문의 3번 선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논리에서, 해당 선지는 수험생들이 이 글이 쓰인 이유를 파악했다면, 3번 선지는 무조건 틀렸다고 선언했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위 제시문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제시문이 쓰여진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당 선지가 맞다면, 추후 제시문의 논의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해당 제시문은 본 교재 후반부 317페이지에서 다룹니다.

- ② 언론에 제공된 변호인의 발언은 공정한 형사재판을 침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 ⑤ 소송 당사자 양측에게 보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기회를 대등하게 주어 피고인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선지들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피고인의 권리)를 조화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전개되기 위한 ‘전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번 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범죄 보도의 경우보다 적법절차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도”라는 문장을 통해,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하는 능력을 연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주장을 보도기관에 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2번 선지가 진술하는 전제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5번 선지의 경우, 피고인의 “반론권”, 언론의 대등한 “보도”라는 구체적 실행 수단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 역시 선지 내용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5번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LEET TIPS 문제가 요구하는 형식을 확정짓기 위해 다른 선택지를 이용하라

지금부터 The LEET BIBLE Principle (하)에서는 독해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크게 읽기”와 “작게 읽기”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합니다. 크게 읽기는 글의 큰 틀과 구조를 파악하고, 차원을

구획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과정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시문의 전반적인 논리적 흐름과 주요 논점을 이해하며, 각 단락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여 전체적인 구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읽기는 특히 첫 독해 단계에서 중심으로 활용되며, 저자의 목적, 주요 주장, 논의의 전환점과 같은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작업은 생각의 전환, 개념의 변경, 또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요 포인트를 분리하여 큰 틀에서 글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문장을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의 구조를 분석하며 지문을 몇 개의 주요 차원으로 나누어 사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원의 구획을 의도한 형식적 선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지문이 있다면, 이를 두세 개의 주요 차원으로 나누어 "이 부분은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차원", "이 부분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차원" 등으로 구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 전체의 논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재독해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거나 문제에 대응하는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언어이해에서 틀린 선지를 구성하는 원리가 주로 "A 차원의 키워드 a 때문에 B 차원의 키워드 b가 영향을 받는다"는 식으로, 두 개의 다른 차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지는 지문을 읽고 선지로 돌아갔을 때, A와 B의 키워드가 모두 지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맞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오답은 [한 번이라도 봤던 단어들로 못 봤던 관계 형성하기] 유형으로서, 빈번히 출제되며, 오답 구성 방식은 대개 A-a 또는 B-b 중 어느 하나를 변형하여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두 차원(A와 B) 사이의 관계가 지문에서 전혀 설정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이를 연결된 것으로, 맞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차원을 구획하며 읽는 방식은 선지 판단 과정을 단순화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선지가 단순히 차원의 구획을 요구하는 경우, 논리 과정을 검토할 때 "이 논의가 A 차원에 속하는가, 아니면 B 차원에 속하는가"만 명확히 구분하면 되므로, 복잡한 논의를 보다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의 존재만으로 선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지문에서 실제로 두 차원의 관계가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각인해야 할 정보 유형 중 하나는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2. ㉠ ~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A의 B" 형식을 통한 논외의 구조의 발전 양상을 이용한 선지 구성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① ㉠과 ㉡ 모두 공정한 형사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발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번 선지는 앞서 풀어봤던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 내포된 상위 차원의 전제를 묻고 있습니다. ㉠, ㉡, ㉢, ㉣ 판결들에서 "왜 예단을 막고자 하는가?"라는 논의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형사재판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전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상위 차원에서 제시문의 근본적인 논리를 이해해야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술처럼 보이는 선지라도, 이는 제시문에서 한 번이라도 봤던 관계를 의미하는 **진술일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선지는 제시문의 구조 "자체"를 패러프레이징한 형태로서, 현장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다가옵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일단 당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위 차원으로서의 전제나 혹은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제 LINK

글의 전체적 구조 내지 형식 자체를 패러프레이징한 선지

○ 글의 전체적 구조 내지 형식 자체를 패러프레이징한 선지의 사례로, 2018학년도 언어이해 제시문 26~29번 중 코즈와 윌리엄슨 제시문의 27번 문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③계약 제도의 발달을 통해 줄일 수 있다.'

해당 선지는 제시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윌리엄슨이 코즈의 개념을 확장하여 계약을 구분한 방식을 패러프레이징한 선지였습니다. 제시문에서 윌리엄슨은 코즈가 뭉뚱그려 "계약"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을 보다 세분화하여, "복잡한 계약"과 "단순한 계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의 기준은 계약비용의 정도였습니다. 즉, 계약비용이 높으면 복잡한 계약, 계약비용이 낮으면 단순한 계약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의 비용에 따라 복잡한 계약과 단순한 계약으로 나누었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약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단순한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③ 계약제도의 발달을 통해 줄일 수 있다.'라는 선지는 계약비용을 줄이는 가능성을 형식적으로 재구성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코즈와 윌리엄슨의 세부적 진술에 함몰되기 앞서, 코즈와 윌리엄슨이 왜 나왔는가를 파악해 가면서 읽는다면 당연하게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이 선지를 무척이나 어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시문에서 동일한 문장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특정 표현이 등장하는지를 확인(암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제시문을 읽는) 경우, 이러한 패러프레이징된 선지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게도 제시문에서 논의된 구조를 파악하는데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며[따라서 Principle (상)에서 차원의 구획이 의식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드린 것이고, 이 작업을 위해 사고의 메모리가 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가운데, 논의의 평면적 변수들은 훈련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선지가 이를 형식적으로 재구성한 것인지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범죄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어빈 사건 판결	현실적 예단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리도 사건 판결	일반적 예단	입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세퍼드 사건 판결	침해 예방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사전적으로)
㉣네브래스카 기자회견 사건 판결	㉠어빈 사건 판결 ㉡리도 사건 판결 ㉢세퍼드 사건 판결에 대한 견제	

글의 전체적 구조를 요약해 보자면 위 표와 같습니다. 즉, 해당 제시문의 경우, 첫독해 과정에서 위와 같은 관계들을 밑줄을 통해 잡고 세부정보는 넘어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정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밑줄을 그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② ㉡은 예단에 대한 피고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였다.

"완화하였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은 제시문에서 "입증 여부를 따지지 않고"라는 표현과 의미적으로 대응됩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역시나 단순히 표현 그 자체의 암기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의 패러프레이징과 같은 단어의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은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내에서 예단의 사전방지 수단을 제시하였다.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예단을 가진 후보자를 배제하는 조치를 "사전적" 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었으며, 3번 선지 역시 맞는 선지로 쉽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④ ㉠에서 ㉡으로 이행은 **공정한** 형사재판의 측면에서 보면 **후퇴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 ㉡ 판결은 모두 피고인의 권리를 증진하는 입장에 해당하며, 따라서 같은 차원의 사례일 뿐, 절대 후퇴한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후퇴"라는 개념을 깊이 해석할 필요 없이, 단순히 ㉠과 ㉡이 같은 차원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라는 지시사항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논리적으로 구획된 범주 내에서 두 판결이 같은 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지, "후퇴"라는 단어 자체를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⁶.

⑤ ㉢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경계한 것이다.

4번 선지가 틀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였다면, 5번 선지가 같은 방식으로 당연히 맞는 선지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지만) ㉢ 자체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깊이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 ㉡, ㉢과의 관계 속에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즉, 논리 구조 내에서 ㉢이 기존과는 반대 방향으로 배치되며, 홀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사례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5번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3. ㉣를 뒷받침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3번 문제는 전형적인 추리논증형 문제로서, 해당 진술로 돌아가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는 단순히 "A차원"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차원을 구획하여 "A차원"과 "~A 차원"을 대비하는 사고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즉, A가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함으로써, 논리적 구조 속에서 변수를 명확히 정리/배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고방식은 강화·약화 문제에서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핵심적인 접근법입니다).

6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 역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수험생이니까요. 다만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되면, 그러한 표현이 다르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본서의 목적입니다. 아직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면, 뒷부분을 다 읽고 다시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 차원	~A 차원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 ⇒ 효과가 있는 상황

④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사실을 공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검사에게 그 사실에 대한 **공개 금지명령**을 내린 경우

즉, 단순히 A 차원만 떠올리는 것으로는 대응할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 차원(~A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 차원에 해당하므로, 절대 A 차원이 될 수 없다.", "B(~A)이므로, A일 수 없다."를 적용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검사가 진술거부권 행사를 공표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이 공개 금지명령을 내릴 경우, 이는 사전 방지 수단이 실효성을 가지는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A 차원(실효성이 있는 차원)에 해당하며, 절대 A 차원(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LEET TIPS

제시문을 암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배치하라고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해당 진술이 단순히 A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차원을 이용하는 접근법이 실전적으로 매우 유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강화·약화 문제에서도 빈출되는 패턴이며, 선택지를 보다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전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효과적입니다.

- ① A 차원이 명백한 경우
- ② A 차원이 명백한 경우
- ③ A 차원이 명백한 경우
- ④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음
- ⑤ A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B 차원에 해당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

이처럼 ④와 같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은 선지가 남거나, ⑤번처럼 A 차원은 애매하더라도 B 차원과 연결할 수 있는 선지가 남을 때, 차원적 사고방식을 반드시 꺼내보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질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더 그럴듯한가?"를 판단하려 할 때, 한번 더 선지를 형식적으로 바라보아, 선지의 정·오 판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4학년도 언어이해 정치적 거래비용 제시문 25번 문제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는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으로 맞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정치적 거래비용이론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의 차원의 사례들, 즉 합리적 선택이론(정보의 논리, 신뢰의 논리)에 배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① 법원이 배심원을 격리하였으나 격리 전에 보도가 있었던 경우
- ② 법원이 관할 변경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전국적으로 보도가 된 경우
- ③ 법원이 재판을 장기간 연기하였으나 재판 재개에 임박하여 다시 언론 보도가 이어진 경우
- ⑤ 변호사가 배심원 후보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나 후보자가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선지들의 경우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명확했습니다. ① 격리하였으나, 격리 전에 보도가 있으면, ② 관할 변경 조치를 취하였으나 보도가 생기면, ③ 재판을 연기했어도 다시 그 전에 언론보도가 생기면, ⑤ 예단을 없애려고 했는데, 거짓 답변을 했다면, 효과가 없겠죠.

해당 제시문이 왜 쉬운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권리 차원과 언론의 알 권리 차원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정보 습득의 방향과 기억해야 할 정보의 정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제시문을 읽을 때 각 정보가 어느 차원(A 또는 B)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정보들은 논의의 평면적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핵심 개념과 논리 구조만 파악한 후, 주요 변수에 밑줄을 긋고 읽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둘째, 1번 문제와 3번 문제는 **논의의 평면적 변수들을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이는 이항관계를 갖는 제시문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두 문제 모두 이항관계를 기반으로 출제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즉,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개념을 찾아내는 선지가 출제되었으며, 이를 정확히 구별하면 정답을 쉽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수험생께서는 2번 문제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정답 선지는 단순하게 차원의 구획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항관계를 갖는 제시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

3번 문제 ④ 선지가 저는 관계 유무에서도 틀렸고 관계 정도도 틀렸다고 정답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유는 지문에서 공소제기 전인 수사 단계에 해당하는데 검사는 주체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사 단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관련돼 있고 공소 이후가 검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관계 유무에서 검사가 일단 탈락이 된다고 봤습니다.

사례형문제

네. 예단 방지 수단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견해에서 그럼 수사기관, 경찰 여기에 대응하려고 한 건 뭐예요?

수험생

그러니까 3번에 ④ 자체가 검사가 이거를 공개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글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 언론 보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 기관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3번에 ④는 수사 단계가 아니고 공소제기 이후에 주체인 검사를 삼고 있으므로 관계의 유무에서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사례형문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는 수험생께 흔히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교정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교정 방법은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구나'를 연습하는 것이예요. 해주신 말씀대로라면 '수사 단계'와 '검찰'은 다른 거네요. 그러면 공소제기 전인 수사 단계와 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범죄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고 있고, 공소제기 전인 수사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소제기 전의 수사 단계만 존재할 수 있고, 공소제기 후의 수사 단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제시문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만 보면, "수사는 공소제기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보이지만, 제시문이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내에서 또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법원-수사기관-변호사회-보도기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범주에 경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 보도는 예단 형성의 위험성이 큰데도”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등장하는 “수사기관”을 검찰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실행(다른 단어로의 패러프레이징)을 시도해 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사례에 노출되고, 스스로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적용해보는 과정이야말로 실전에서 변형된 문제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저 역시 이러한 시행착오와 교정 작업을 거쳐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지금과 같은 사고과정은 추리논증에서 더 빈번히 발생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Review Note

✓풀어볼 문제 2016학년도 언어이해 1~3번

POINT ▶ 놓친 부분, 문제의 변하지 않는 정신, 내가 깨달은 것, 선생님이 말해준 포인트

- 크게 읽기 : 소재 소개(피해자 권리 보호 vs. 언론 보호) ⇒ ㉠~㉢(기억할 필요 X, 다시 돌아와서 보기) ⇒ 새로운 견해 제시(그런데 언론 보도의 ~ 의미를 새기는 견해도 있다)
- 일상어에 예민해지기 ⇒ 방향성이 다름을 알고 차원을 구획해야 함
- 2번 문제 빨리 풀어야 함(차원의 구획)
- 사례 활용하기 ⇒ 3번 문제는 제시문에 나온 사례를 그대로 활용해서 선지를 만들
- 3문제 모두 대응형 ⇒ 시간 줄일 수 있는 문제

WRONG ▶ 처음 풀이의 사고과정이 어디서 왜 잘못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부분

- 선지에서 사례가 나왔다면 제시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본문 구조	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항구조) 1. 반대 - 공정한 재판 저해 우려 2. 찬성 - 표현의 자유 ----- 절충안 : 변호사의 언론보도 가능성	
1 ③	공판 전 보도금지명령은 공정한 형사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 예단 방지 수단이다.	방향성이 다른 단어를 찾아내기 가장 강력한 (⇒ 최소한
2 ④	㉠에서㉢으로 이행은 공정한 형사재판의 측면에서 보면 후퇴한 것이다.	㉠ : 입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죄판결 파기 가능(입증 책임 완화) ㉢ :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예단을 가진 후보자 배제(사전 방지 수단 제공) ⇒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후퇴가 아니라 진보했다고 볼 수 있음 ㉠㉡㉢ / ㉢로 차원 구획
3 ④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사실을 공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검사에게 그 사실에 대한 공개 금지명령을 내린 경우	시키는대로 ⇒ not ㉢ 찾기 / 사례 활용 법관이나 배심원들의 예단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인가?[수단의 유무] 그 수단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수단의 정도] ⇒ 제시문에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수단을 언급하였다'까지 예단 방지 수단들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여기에 대응되지 않는 공개 금지명령이 답이 됨.